

아아...
미, 미림이만은...

원 상태로
돌려줘....

내가
뭐든 할 테니까...

함 짹

함 짹

함 짹

제발...

쿠쿠...

이 언니도 전에
똑같은 소리 하더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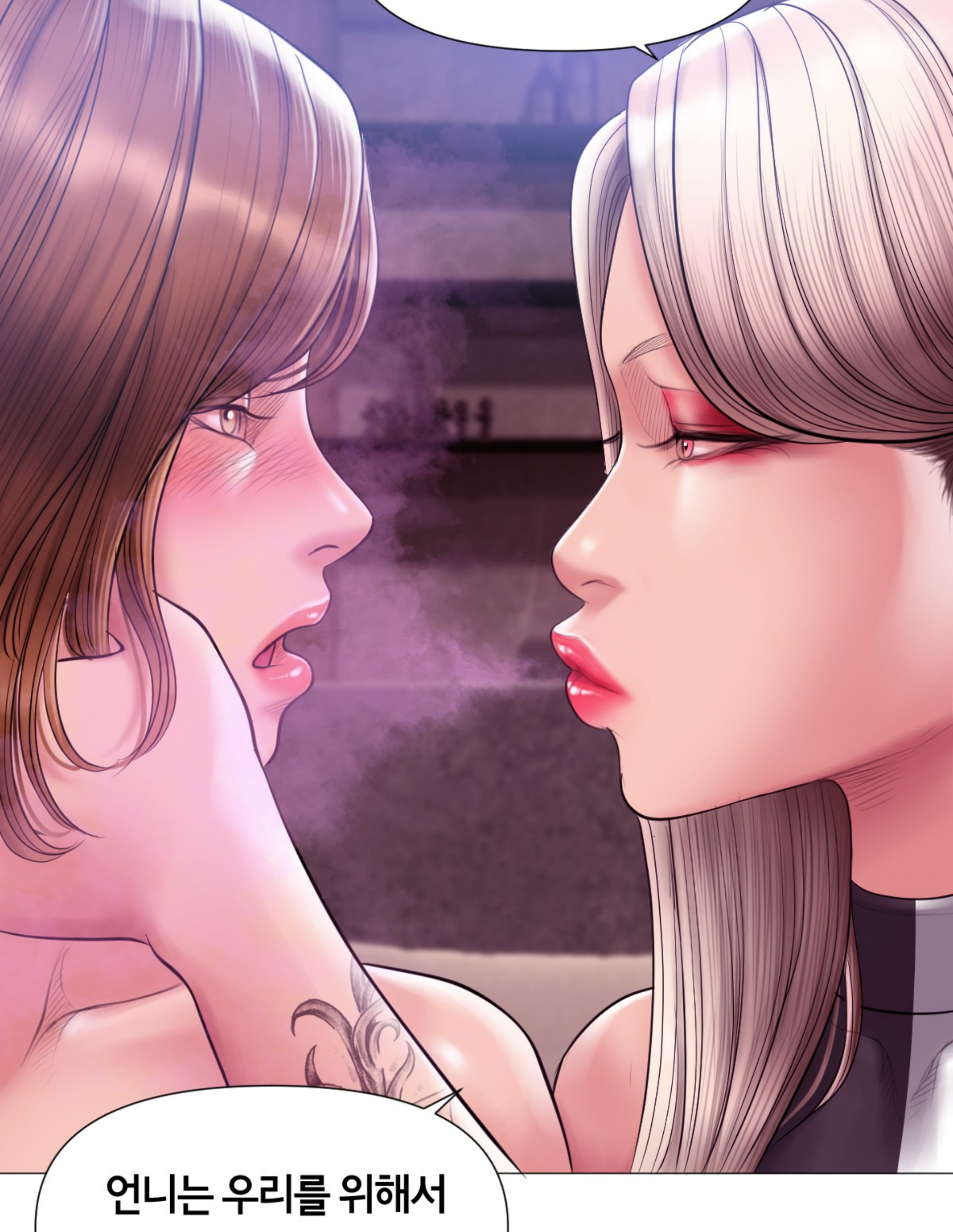


참 대단한 우정이야.

근데 그런
뻘한대사안통한다는 거
잘알지 않나?



어차피
그렇게 빌지 않아도



언니는 우리를 위해서
'뭐든' 하게 될 거야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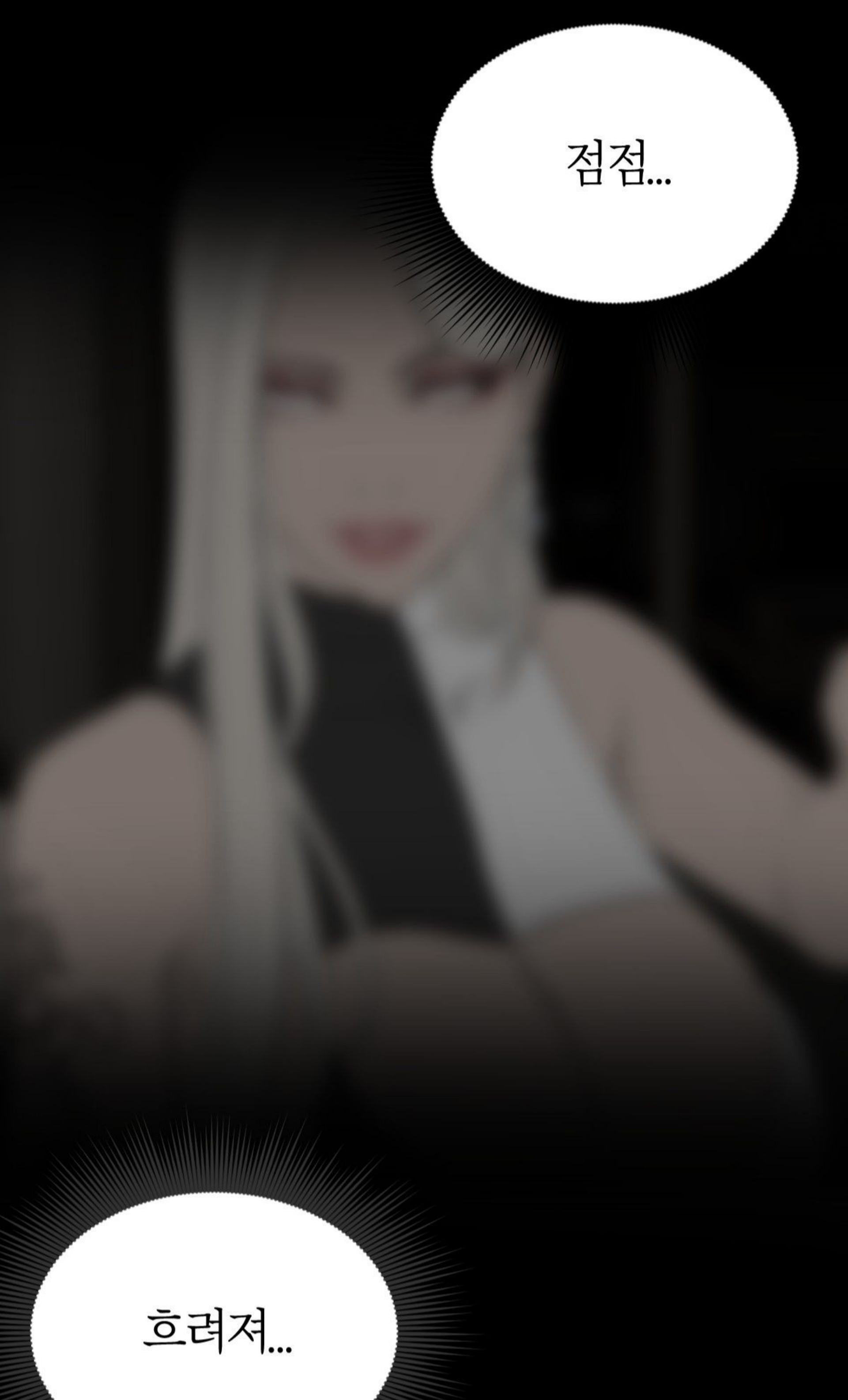
하아...



비, 빌어먹을...



의식이...



점점...



허려져...



혼자 이방인이 된 거 같아 많이 외로웠지?

아하스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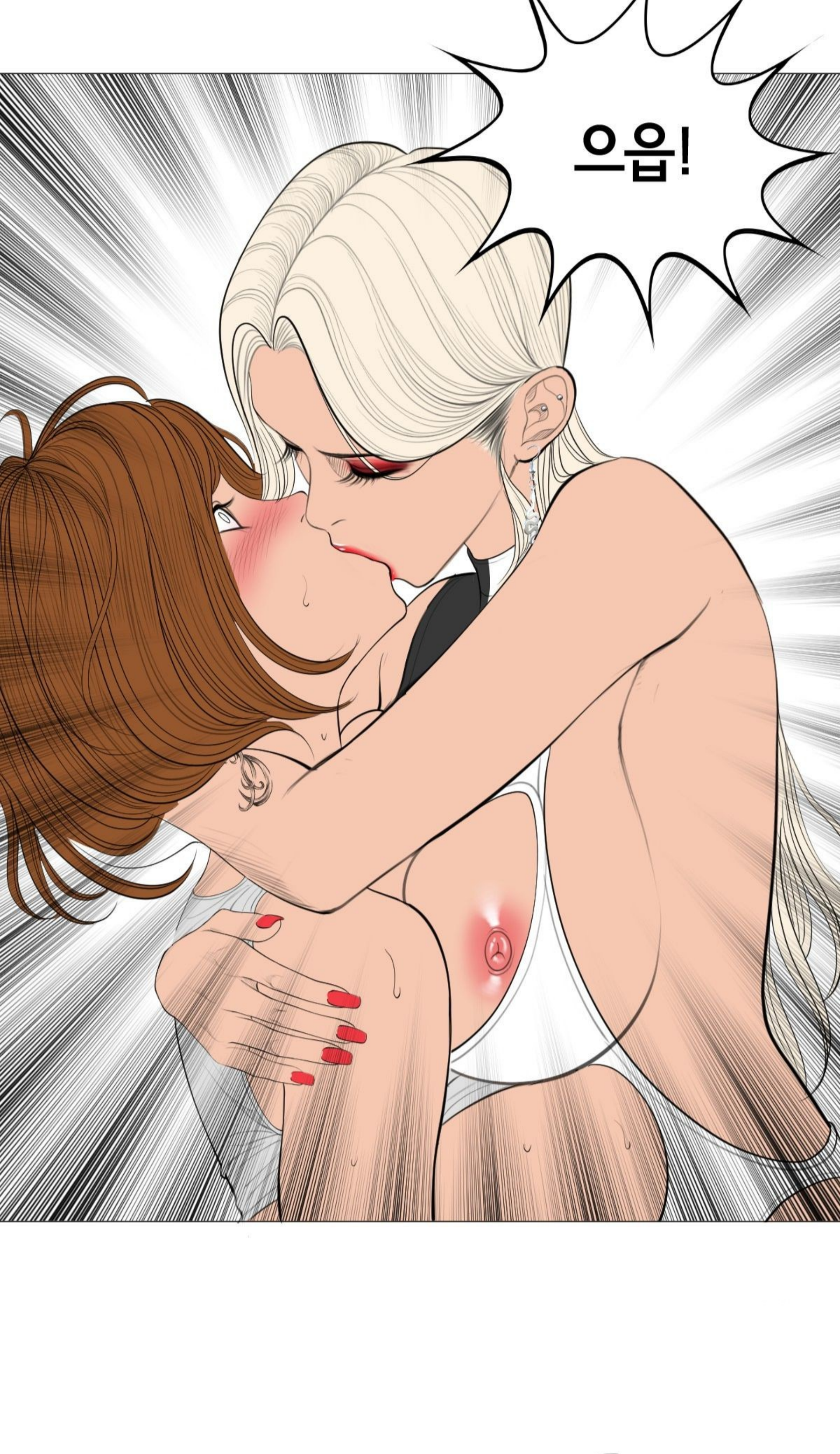
이젠 걱정할 거 없어.

으웃...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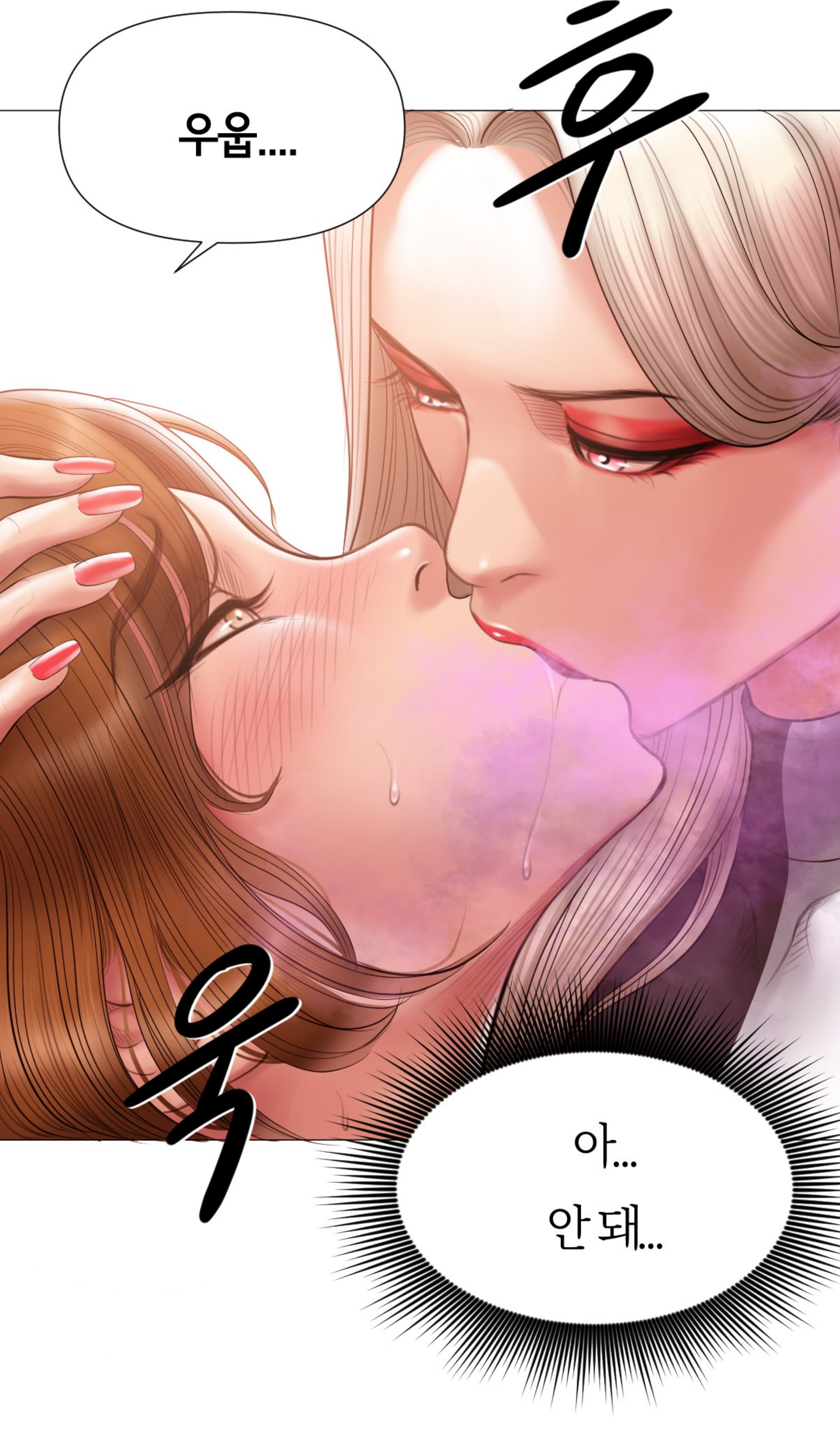
문걸

문걸

언니도 우리 '문화'에
자연스럽게 융화될 거니까...



으음!



우웬...

후

아..
안돼...



몸에 힘이
빠져서...

아무것도
할 수가 없어..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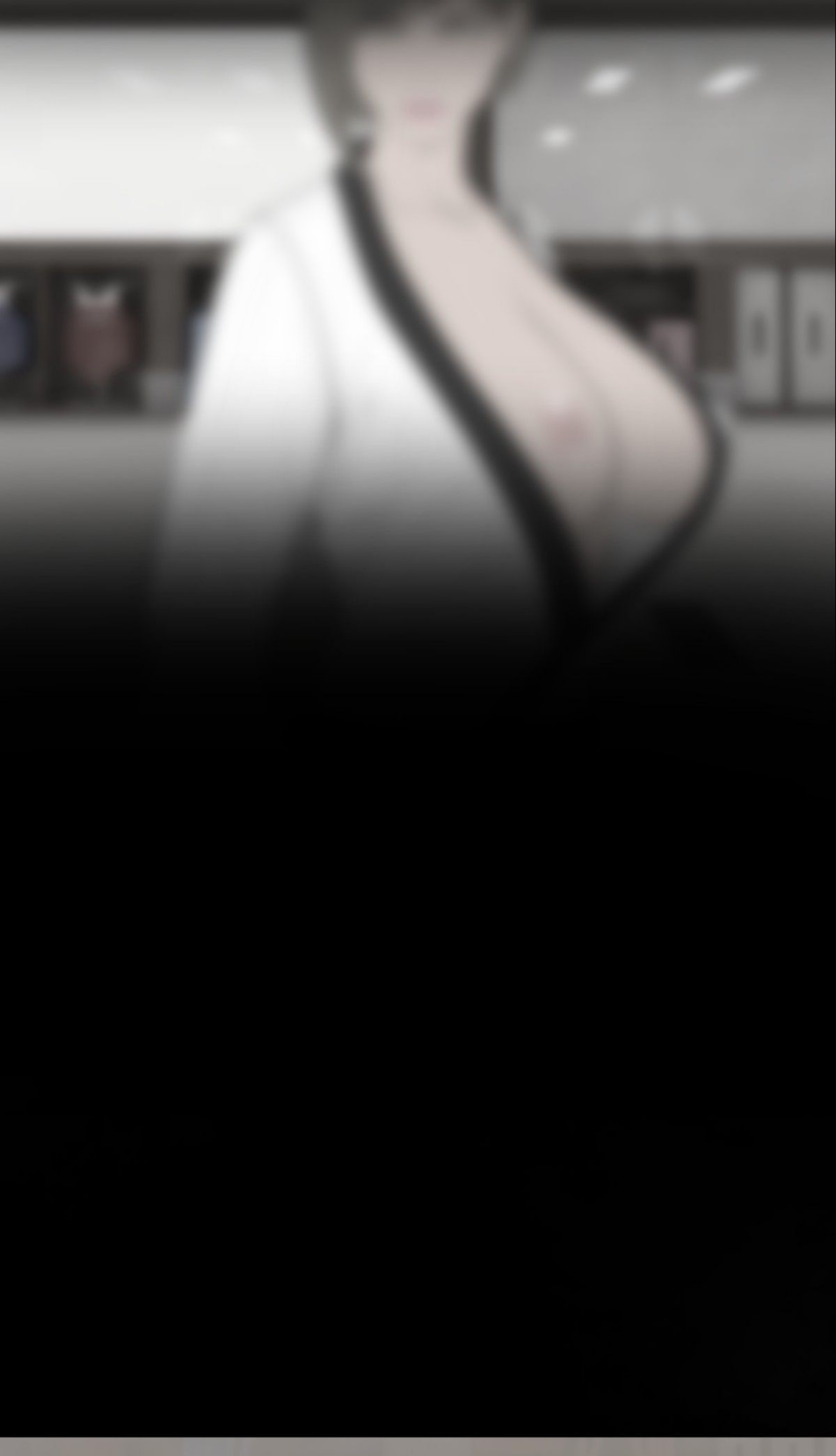
더, 더는...

버틸 수...





이지민!



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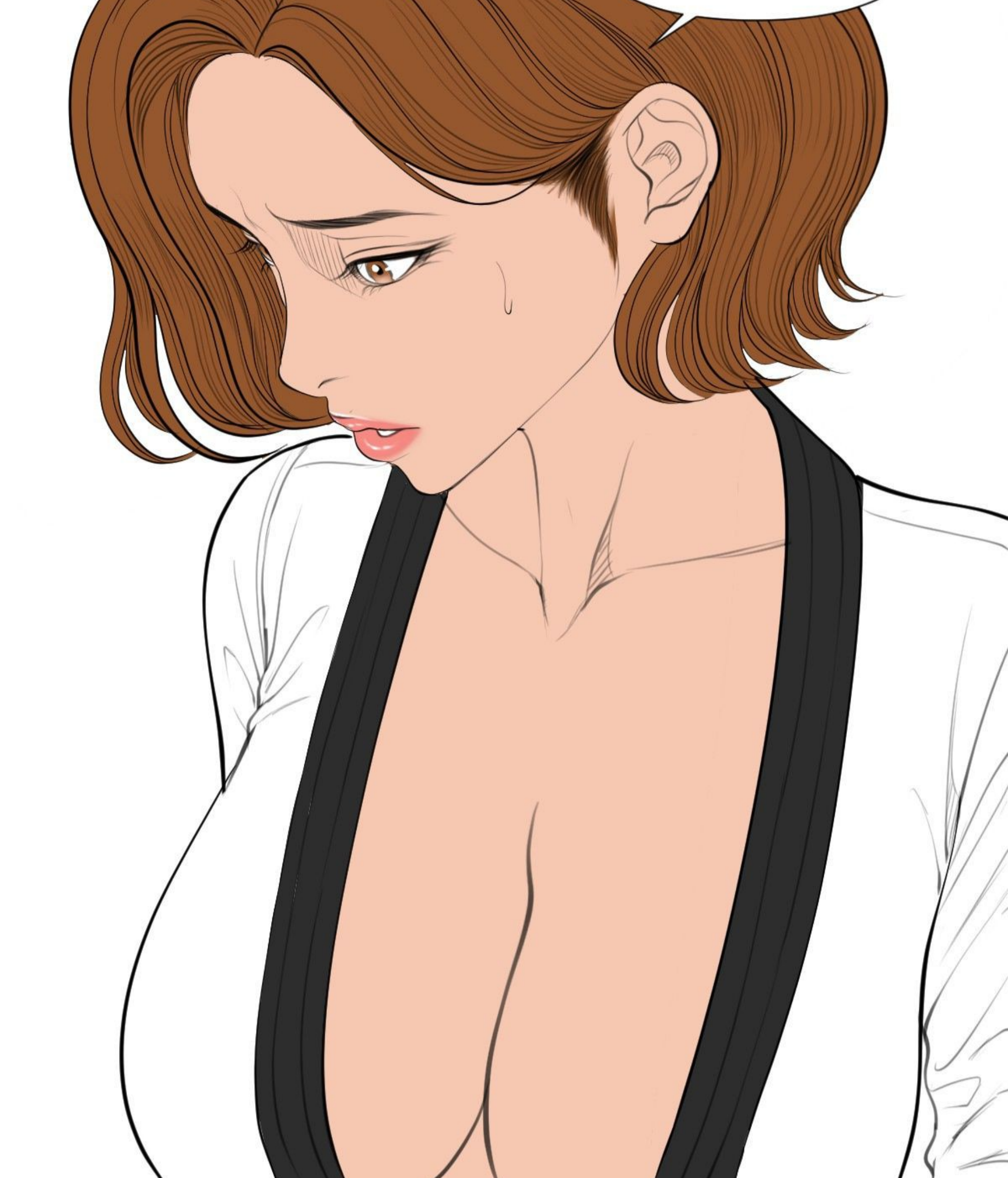


대련 중에 정신을
어디 팔고 있는 거야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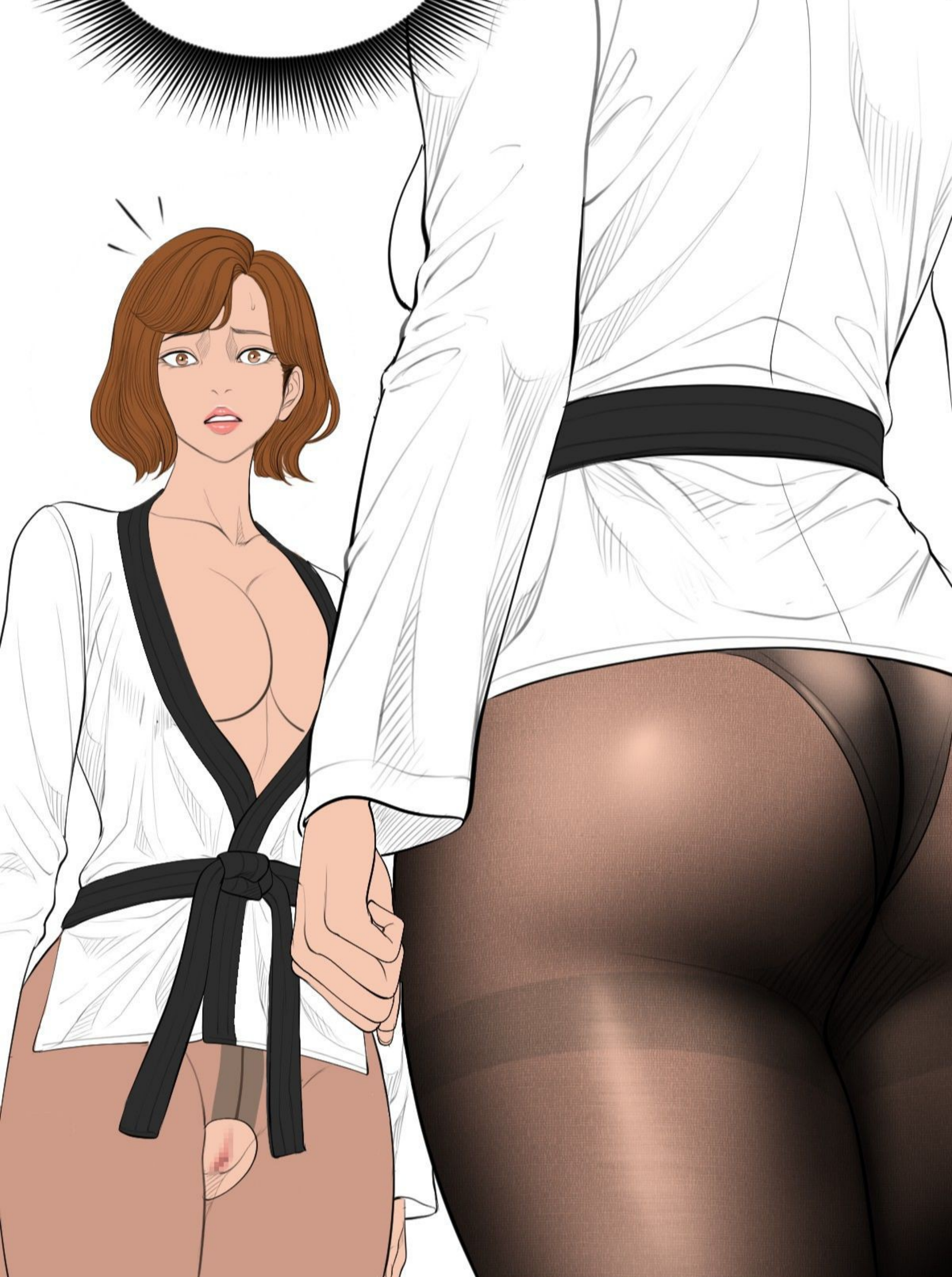


... ?

아...



뭐지...?



원래 도복이...

이렇게
생겼던...가?

